산업통상자원부	보도자료	배포시 별도 통보 전까지 보도를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

보도시점 2024. 9. 22.(일) 11:00 < 9.23.(월) 조간 > 배포 2024. 9. 20.(금)

< 한-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>

아세안과 공급망 등 경제통상협력 본격화

- 통상교섭본부장, 「아세안 경제장관회의」 및 'RCEP 장관회의」 참석
- 한-아세안 경협 플랫폼, 「한-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」 내년 출범 합의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.21.(토)~22.(일)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「아세안 경제장관회의」에 참석하여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「아세안 정상회의」의 경제 분야 의제를 논의·확정하는 한편, 지난 8월 발표한 「통상정책 로드맵」 후속조치 차원에서 아세안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.

먼저, 정 본부장은 「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(EAS*) 경제장관회의」(9.21.(토))에 참석하여 공급망, 디지털 전환, 기후변화 등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신통상 이슈에 대한 EAS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.

* East Asia Summit : 아세안 10개국,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미국, 러시아, 인도

다음날 개최된 「제21차 한-아세안 경제장관회의」(9.22.(일))에서는 △「한-아세안 FTA」 이행 및 업그레이드 △한-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연장 △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△표준협력 고도화 등 한-아세안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. 특히, 정 본부장은 한-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한-아세안 경제·통상 분야 연구기관 간 정례 협의체인 「한-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」의 2025년 본격 출범을 아세안 측에 제안하고, 아세안 회원국 다수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.

이어서 「제27차 아세안+3(한·일·중) 경제장관회의」(9.22.(일))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+3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, 글로벌 경제 분절화 기조 속 다자무역체제 기반 협력 강화,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.

아울러, 「제3차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 장관회의」(9.22.(일))에서는 △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RCEP 이행강화방안 △RCEP 가입 절차 마련 △

RCEP 지원조직 설치 방안 등 현안을 점검했다. 또한 공동위원회 산하 이행위원회 활성화, 각국의 재원을 활용한 경제기술협력 활동 확대 등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.

한편, 정 본부장은 인도, 영국, 필리핀, 스위스 등 주요국과의 경제통상 장관회담을 갖고 교역·투자 확대, 공급망 협력,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,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「한-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」, 「한-아세안 FTA」 개선 등 이번 한-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공급망, 디지털 전환,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, 10월로 예정된 「제25차 한-아세안 정상회의」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세안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.

*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대상('23년 1,872억불)이자 투자지역('23년 73억불)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정주 (044-203-5710)
		담당자	사무관	강홍구 (044-203-5712)
담당 부서	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이행과	책임자	과 장	고 현 (044-203-57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원 (044-203-575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